

하루를 시작하며



권 희 진
디어마이블루 서점 대표

디어마이블루를 열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공식 SNS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1인 출판사의 책을 한 권 소개했는데 며칠쯤 지나 다른 동네서점 SNS에 입고 소식이 올라왔다.

우리는 처음부터 200종의 책만 입고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기에 입고 책의 기준이 엄격한 편이다. 보통 인터넷 서점이나 기사 검색을 해서 괜찮은 책을 발견하면 목록을 만들어둔 뒤 반드시 오프라인 서점에서 직접 살펴보거나 구매해 한 번 더 만듦새와 내용을 확인한다. 그리고 같은 분야의 책들 중 가장 괜찮은 책부터 순

동네서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위를 매겨 놓고 그중에서 출고율이 가장 낮은 책, 즉 서점 입장에서 이윤이 가장 높은 책을 입고한다. 한정된 종수에서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 서점 입고 책들은 물론 내 기준에서긴 하지만 만듦새와 내용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서 책의 출고율도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것들이다.

처음엔 다른 동네서점에서 입고한 것이 당연히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안 알려진 책이라도 세상에서 그 책을 나만 알란 법은 없으니까. 하지만 그 이후로 우리가 책을 소개할 때마다 며칠 후 그곳의 '새 책 입고 목록'에 매번 똑같은 책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결국 특정 책 소개를 거의 중단하다시피 한 계기는 엉뚱한 데서 터졌는데, 서점을 열고 1년쯤 지나 다른 지방에서 온 관광객 손님이 자기네 동네서점이란 우리의 분위기가 너

무 비슷하다고 한 것이다. 부랴부랴 SNS를 찾아서 들어갔더니 오픈한 지 두어 달 남짓한 곳이었고, 뭔가 비슷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뭐라 하기는 애매한 상황이었다. 정면 벽의 타공판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나 책의 종수를 제한한 점, 무엇보다 목록 중에 겹치는 게 유독 많긴 했지만, 당시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개성이나 소신 없는 동네서점이 오래 갈 리 없다고 믿는 것뿐이었다. 아 니라 다름까, 내가 더 이상 책 소개를 올리지 않아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은 오픈한 지 1년도 안 되어 문을 닫고 말았다.

얼마 전에 출간된 어느 유명한 동네서점 주인공의 책에도 이와 비슷한 일화가 나온다. 그 서점만의 독특한 시그니처인 '읽는 약' 봉투를 다른 지역의 동네서점에서 양해도 구하지 않고 똑같이 베껴서 팔고 있더라는 것이다. 이런 콘셉트는 사실 특어도 널 수

없어서 대놓고 따라 한다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다만 우리가 소개하고 파는 품목이 읽는 약, '책'이기에 그런 식의 무례에 대해 씁쓸함을 더 짙게 느낄 뿐이다.

디어마이블루는 올해로 벌써 4년차가 됐다. 지난해의 위기로 많은 동네서점들이 문을 닫았지만 또 새롭게 문을 여는 동네서점들도 있다. 조금이라도 먼저 서점을 연 사람으로서 꼭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우리가 파는 '책'은 그 자체로는 차별성이 없다. 우리 서점에서 파는 책은 대형서점에도 있고 온라인 서점에도 있고 다른 동네서점에도 있다. 이것을 어떤 콘셉트로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결국 그 서점의 개성이자 힘인 것이다. 세상천지 새로운 게 없었지만 새로 등장하는 동네서점들이 남을 따라 하기보다는 치열한 고민과 전략으로 자기만의 빛을 발하면서 오래가는 그런 동네서점들이 되길 바란다.

열린마당

청렴한 건축을 위한 노력



변 상 인
서귀포시 건축과장

지난 2020년 우리시가 처리한 건축민원 건수는 1586건에 이른다. 최근 건축민원 처리는 인터넷에 기반을 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접수돼 처리되고 있어 민원인과 건축사와의 접촉은 많이 감소했다. 업무담당자는 부정청탁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멀리 뉘야 하고 인허가 여부를 청렴하고 적법하게 판단해야 한다.

건축주는 평생 추구하고 있는 건축에 대한 꿈을 인허가를 받고 건축물 완료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만족감을 성취한다. 그러나 그 주변 시민들은 공사로 인한 각종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

다. 그러한 불편사항이 관련규정에서 허용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청렴하지 못한 인허가는 주변 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지 않을까.

건축 인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처리이다. 다수의 시민들은 건설경기 하강으로 민원처리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더욱 빠른 민원처리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21년도 건축민원 평균 처리기간을 전년 대비 4.5일 단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모든 건축여량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불가한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 민원인이 이해하고 즐거운 맘으로 시청을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청렴한 건축 실천으로 시민들에게 편안함과 만족감을 드리고 이런 환경을 기반으로 건축되는 건축물들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청렴한 건축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겠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형 재난지원금 생색은 다 내놓고”

4차 지원 사각지대 우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 선별 지원 추진과 관련 일각에서 우려·비판의 목소리 제기.

19일 문종태 제주도의회는 자신의 SNS에 지난해 제주도가 제주개발공사로부터 받은 200억원으로 3차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50억원에 그쳤으면서 “설계가 잘못된 것이 근본 이유였다. 4차 재난지원금 역시 지원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피력.

지난 18일에는 홍명환 의원이 “생색은 도지사가 내고 실제 지원받는 이는 일부”라고 지적. 오은지기자

네이버, 제주은행 인수설

○…네이버 제주은행 인수설이 떠돌고 있어 진위여부에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

한 중앙언론은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이지만 지난 2018년 미래에셋대우와 손잡고 금융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을 신설한 네이

버가 제주은행을 인수하고 은행업 면허를 취득해 금융업계에 진출한다는 내용을 보도.

제주은행 관계자는 “증권가 유료 사이트에서 떠도는 내용을 기사화한 것 같다”며 “신한금융 지주회사에도 확인했는데 사실무근으로 내일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언급. 고대로그기자

제주시 문화도시 재도전

○…제주시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제2차 문화도시에서 탈락하면서 올해 다시 도전장을 내밀기로 결정.

지난해 '시민이 만드는 문화, 수놓음 도시 제주'를 목표로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한 제주시는 1차로 지정된 서귀포시에 이어 지정을 기대했지만 결국 고배.

시 관계자는 “문체부 지정 문화 도시는 두 번까지 도전 가능해 올해 마지막 기회가 된다”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더 열심히 준비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 문미숙기자

사설

방역수칙 어기며 장사하면 어떻게 되나

제주지역 코로나19 감염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으나 올해들어 눈에 띄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부터 제주지역 신규 확진자는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7명에 그쳤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도내에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아 우려된다.

제주도는 자치경찰·국가경찰 등과 합동으로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현장점검을 벌였다. 현장점검 결과 중점관리시설 10종과 일반관리시설 15종 등 총 1만3272건 중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56건은 행정지도, 3건은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업종별로는 유흥시설 1건과 목욕장업 1건이 고발됐다. 식당·카페는 1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일반관리시설 6건과 PC방 6건에 대한 각각의 행정지도

가 이뤄졌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4일부터 3일까지 총 2만 262건의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237건을 적발한 바 있다. 방역수칙을 무시하는 업소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한층 강화했는데도 감염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열방센터에 대한 불안요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게다가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업소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매우 걱정스럽다. 방심한 틈을 타고 한순간에 급속히 퍼지는 것이 코로나19의 특성임을 모르지 않을텐데 말이다.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도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쉽지 않은데 태놓고 어

설 앞둔 노동자 임금체불, 특단대책 세우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속에 자영업자 노동자 놓여민 등 서민들 삶이 새해도 매우 팍팍해졌다. 특히 일급이나 월급으로 사는 노동자들 상당수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임금체불로 더 우울한 명절을 맞을 판이다. 행정이 그 어느 해보다 큰 고통으로 다가올 임금체불을 없애는데 선제적이고 특단의 대책으로 나서야 한다.

광주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집계결과 지난해 도내 임금체불 발생액은 153억69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99억여원 임금체불은 청산됐지만 여전히 60억원 이상 임금액은 청산되지 않은 상태다. 고용노동청 제주센터가 당장 내달 10일까지 코로나19 상황에 임금체불 걱정없는 노동자들의 설 명절을 위해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에 나섰다. 임금체불 청산 기동반을 편성, 건설현장 등에서 체불농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출

근급한 체불신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한다. 여기에도 도산한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못받는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替當金)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금리 한시 인하 등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임금체불 해소는 제주도와 산하기관의 관급공사나 물품구매 대금 관련, 도의 특단대책도 나와야 한다. 도가 최대한 선급금이나 기성금 체불은 청산했지만 여전히 60억원 이상 임금액은 청산되지 않은 상태다. 고용노동청 제주센터가 당장 내달 10일까지 코로나19 상황에 임금체불 걱정없는 노동자들의 설 명절을 위해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에 나섰다. 임금체불 청산 기동반을 편성, 건설현장 등에서 체불농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출

동해 해결하고, 휴일과 야간에

부 고

김보람 아버지 안동김공 창수(前 태극 가스 대표 · 향년 70세)께서 서기 2021년 1월 19일 01시 41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1년 1월 20일(수요일)
- ▶발인일시: 2021년 1월 21일(목요일) 오전 8시30분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5빈소
- ▶장 지: 양지공원

부인 김경자
딸 김보람
가람 사 위 이지호
외 손 이래현

※ 연락처 : 김경자 010-4370-3435
김보람 010-6617-7611
김가람 010-8662-3433
이지호 010-3444-1917

용강동 가족모지용 매매

모지허가 가능

연락처
010-6360-9167
010-7666-2310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3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빙의·신들림

증세로 고생하시는 분
상담환영

- ◆전화 · 대면상담 무료
- ◆빙의천도 최고전문가

영가천도, 빙의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융강선원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064)746-078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감골모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적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을 받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모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진.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귤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목 35년

석 파 농 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